

SKT 기지국의 변신... '지진관측 네트워크' 구축

기상청·경북대와 지진대응체계 등 연구

기지국이 통신망뿐 아니라 '지진관측소' 역할을 맡는다.

SK텔레콤은 기상청·경북대학교와 손잡고 한반도의 지진 탐지 및 경보체계에 연계할 수 있는 '지진관측 네트워크'를 시범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전국에 분포한 기지국, 대리점 등 3000여 곳에 지진감지센서를 설치하고 이를 기상청의 지진관측시스템과 연동해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지진관측 네트워크'를 국내 처음으로 만든다. SK텔레콤은 연내 과출소, 초등학교 등 8000여 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SK텔레콤·기상청·경북대학교는 국가 지진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한 연구를 내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기상청



SK텔레콤 엔지니어가 기지국과 연동한 지진감지센서를 점검하고 있다. /SK텔레콤

은 SKT 기지국 내 설치된 지진감지센서의 진동 데이터를 기상청의 지진관측자료와 비교해 지진분석의 성능을 검증하고 지진정보 서비스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내진, 진동 등의 안정성 검증을 수행하는 한국에스지에스 동탄 시험소에서 기상청, 경북대학교와 함께 모의 지진 시험을 진행했다.

SK텔레콤의 지진감지센서는 기상청에서 지진분석에 활용되는 고성능의 지진관측장비와는 달리 소형의 저가형 장비로 한 뼘 크기의 220V 플러그 타입이기 때문에 설치와 이동이 편리하다. 또 초당 100회의 진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밀 분석을 통해 일반 진동과 지진을 구분하도록 설계돼 있다.

SK텔레콤은 지진감지센서에 관측되는 24시간 실시간 ▲진동 데이터 ▲기압 등을 SKT 수집서버로 분류해 기상청에 보낸다. 기상청은 제공받은 진동 데이터를 국가 지진관측망과 융합해 진동정보생산, 지진조기경보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韓음원 플랫폼 볼륨 높이려면



기자 수첩

김나인 (산업부)

“국내 경쟁사도 걱정이지만 ‘유튜브’는 정말 무섭습니다. 대안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유튜브의 음원 플랫폼인 유튜브 뮤직이 국내 음원 시장의 강력한 적수로 떠오르고 있다. 막대한 이용자 수를 무기로 ‘편리함’을 앞세워 기존 음원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해의 플랫폼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재편되는 대표적 시장은 미디어이다. 2016년 미국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 처음 진출할 당시에는 유료방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넷플릭스가 촉발한 유료방송 시장 재편으로, 국내 이동통신사는 ‘웨이브’, ‘시즌’ 등 자사 OTT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했다. 위기를 맞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인수·합병(M&A)에 뛰어들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해의 플랫폼의 공세는 국내 음원 콘텐츠 소비 시장에도 재현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유튜브의 공세가 무섭다.

국내 유튜브 이용자는 3370만 명에 달하는데, 이 이용자가 막강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용자의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가 더 정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와 만난 음원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유튜브 앞에는 적수가 없다”며 절레절레하는 판이다.

이 와중에 국내 음원 플랫폼은 ‘음원 사재기’와 음원 정산료 등의 문제로 풍파에 시달렸다. 1위 업체인 ‘멜론’은 실시간 차트를 폐지한다는 공식 발표를 내놓으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미 ‘플로’ 등은 실시간 차트를 폐지하고 이용자들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내세우며 시장 변화에 대처하고 있다.

국내 음원 플랫폼 시장은 시험대에 섰다. 이용자는 한정돼 있는데 플레이어는 늘어나고 있다.

승기를 잡는 관건은 결국 이용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경쟁력은 있다. 넷플릭스가 자체 콘텐츠로 이용자를 확보했듯이 국내 음원 시장에는 K팝이라는 무기가 있다. 소비자 개인의 취향을 저격하는 우리 콘텐츠를 어떻게 큐레이션하고, 활용하는지가 볼륨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silkni@

한화큐셀, ‘국제 그린에너지엑스포’ 참가

프리미엄 제품·국내 맞춤 솔루션 선보

한화큐셀이 국내 최대 태양광 에너지 전시회에서 프리미엄 및 국내 시장 특화 제품을 선보인다.

한화큐셀은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간대우광역시 엑스포에서 개최되는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 참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지난해 25개국 약 300개

사가 참여하고 관람객 3만2000여명이 방문한 국내 최대 태양광 에너지 전시회로 올해 17회차를 맞았다.

한화큐셀은 그동안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잡아 세계 주요 시장 고객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올해 수만명의 독일 소비자가 참여한 ‘생활소비재 어워드’ 태양광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며 명품 태양광 브랜드로 인정받았다.

이번 엑스포에서 한화큐셀은 주요 태양



지난해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 참가했던 한화큐셀 부스 현장. /한화큐셀

광 모듈 시장에서 검증된 프리미엄 제품군과 국내 맞춤 솔루션을 위주로 선보일 예정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오늘의 운세 7월 10일 (음 5월 20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자녀에게 큰 기대는 마라. **48년생** 지혜는 부족하나 근면성실로 극복. **60년생** 한 가지 일에 매진토록 계획을 세워라. **72년생**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배우자 뿐. **84년생** 결실이 보일 때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 37년생** 문서나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라. **49년생** 지나치게 강경하면 부러지기 십상. **61년생** 남이 칭찬을 해도 겸손한 태도를 유지. **73년생** 원적을 벗어난 행동으로 곤경에 처한다. **85년생** 남의 험담에 끼여들지 말고 조용히.
- 38년생** 항상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것이 현명. **50년생** 사람을 가리지 말고 만나야 필요한 사람을 만난다. **62년생** 평소 가고 싶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74년생** 생 먹을 복이 많은 날. **86년생** 자신이 아는 정보를 발설하지 마라.
- 39년생** 작은 일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51년생**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다가 보라. **63년생** 혼자서 하는 작업으로 스트레스가 쌓인다. **75년생** 모든 것을 혼자서 떠맡으니 심신이 피곤. **87년생** 설부른 이직은 피곤하다.
- 40년생** 언행을 조심하고 경계방동을 삼가라. **52년생** 남의 충고를 가버어 여기 지 마라. **64년생** 금전 문제로 마음의 근심이 쌓인다. **76년생** 헛소문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88년생**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 41년생** 겉모양은 화려하나 실속 없는 하루. **53년생** 요행을 바라지 말고 정도를 견자. **65년생** 책임진 일이 쉽게 처리되나 성과는 천천히 나타난다. **77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불참식이 답. **89년생**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

- 42년생** 먼저 주는 것이 나중에 더 큰 것을 받는다. **54년생** 작은 실수를 확대해석하여 비판하지 마라. **66년생** 바쁘더라도 우편물을 꼭 확인. **78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오고 운이 활짝 열린다. **90년생** 경험자의 조언에 따르는 것이 좋다.
- 43년생** 변화 속에 반드시 기회가 온다. **55년생** 당장은 어려워도 꾸준히 노력. **67년생** 근거 없는 칭찬을 남발하면 인심을 잃는다. **79년생** 결혼은 타협의 연속이니 대화가 매우 중요. **91년생**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
- 44년생**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시작. **56년생** 자신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 **68년생**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 **80년생** 웃을 준비를 하고 사람을 만나라. **92년생** 첫 손가락에 배부르기 힘드니 더 많이 노력.
- 45년생** 살면서 생긴 지혜가 도움을 준다. **57년생** 달리고만 하지 말고 주면도 살펴라. **69년생** 몸이 멀리 가니 마음도 멀어진다. **81년생**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일을 어렵게 만든다. **93년생**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 46년생**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 번 점검할 때. **58년생** 삶의 중심에는 항상 자신을 두라. **70년생** 사탕타령만 하고 있기에 시간은 없다. **82년생** 슬핀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야 한다. **94년생** 목이 마르면 스스로 우물을 파야 한다.
- 47년생** 상태를 너무 채근하면 튕겨져 나간다. **59년생** 지나온 세월이 그나마 행복했다. **71년생**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대니 좋은 땅이 될 것. **83년생** 너무 강경하게 나가면 동조자가 없다. **95년생** 작은 것은 내어주고 큰 것을 노려라.



김상회의四季

마을 같은 도시

마을이라는 말을 들어본 지가 오래되었다. 마을은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을 이르는 말이였다. 사람이 시골에는 줄어들고 도시로 몰리면서 여러 부분에서 도시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 공간도 생활도 문화도 도시 위주로 바뀌면서 마을은 자연스럽게 잊히는 중이다.

나이가 많은 기성세대들은 대부분 어려서 마을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다. 마을 사람을 보면 이름은 몰라도 누구네 집 아들이고 딸인지는 알고 있었다. 조금 과장해서 하는 말로 옆집에 손가락이 몇 개 인지도 알고 살았다. 말하는 그대로 너나들이의 열린 공간이였다.

요즘 많이 들리는 말이 열린 마음이고 열린 소통이다. 기성세대가 살았던 마을은 열렸다는 말의 상징이라고 할 만하다. 도시화가 빨라진 이 시대에 아무리 열린 마음과 소통을 외친다고 한들 예전 마을에서 보았던 만큼의 열림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신세대는 마을의 문화와 전혀 다르게 살아간다. 아파트 한 동에는 옛날 마을 하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옛날의 마을과 요즘의 아파트 중에서 어떤 게 좋다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저 다른 형태로 살아가는 것일 뿐이다.

편리하기는 하지만 때때로 막힌다는 느낌인데 마을의 삶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특히 그럴 것이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의 거주 형태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한다. 서로 간섭하지는 않아도 얼굴 보면 인사를 나누고 누군가 힘든 일이 있으면 조금씩 부족해주는 그런 형태 말이다. 건조함 속에서 조금은 촉촉해지는 작은 커뮤니티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다. 티끌 같은 관심을 나누다 보면 우리 마을의 정감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토쿠365

문제풀이: 3X3 스토쿠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3X4 몬스터스토쿠는 가로세로, 3X4 박스에 1부터 9, A, B, C의 숫자, 영문이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정답

2	7				4	3
5	C	8		6		
	A		9		1	5
			6	7	3	
		4	8		1	A
9	B		C			
6		2		1	5	B
3				A		
9			5		6	7
4			2		9	C
A	1		B			8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결합형 스토쿠 사무라이스토쿠 시리즈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s://sudoku365.net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48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588호